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7월 두 번째 28권 13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JSA 콘서트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304통신대대

6면 자유 공간
이현규의축구이야기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옥주현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8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5회 한국어 웅변 대회

카투사 신문 장승모

대상을 수상한 미 8 군 군악대 Joseph Martin 병장

지난 7월 16일 용산 메인포스트 발보니 극장에서는 주한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웅변대회가 있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한국어 웅변대회는 한국군지원단의 주최로 정훈교육시간에 이루어졌고, 여러 매체에서 온 많은 기자들의 열띤 취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웅변대회 참가자들을 선별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한국군지원단 간부들과 카투사들이 합심하여 준비를 잘할 수 있었다"는 한국군지원단 소속 박태준 병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내년에 있을 제6회 한국어 웅변대회도 올해와 같이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회를 준비한 소감을 밝혔다.

총 13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들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각각의 참가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주제로 그들이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말하였고, 이는 많은 카투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1-43방공포대 William Blair 대위는 "한국에 온 지는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약 8개월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다"며 "이런 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대회에 참가하였다"고 대회 참가 이유를 말했다.

참가자들의 한국어 웅변 중간에는 카투사들의 장기자랑도 있었고, 대회는 시종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유지했다.

'고마운 카투사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 대상을 수상한 미8군 군악대 Joseph Martin 병장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군악대 동료들의 음악에 맞추어, 군악대 지휘봉을 능숙하게 다루며 단상에 올라갔다. 이 광경은 대회를 관람하는 많은 이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으며, 그가 웅변을 시작하자 이들은 그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시했다.

"대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Martin 병장은 "한국어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 카투사 동료들에게 특히 감사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상자 외에도 이번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한국군지원단장 김덕곤 대령으로부터 직접 상장과 상품을 받았으며 제5회 한국어 웅변대회는 이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

상병 장승모

미 2 사단 워리어 스포츠 행사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워리어 스포츠 페스티발(Warrior Sports Festival)이 진행되는 동안 미 2사단 캠프들은 축제의 한 마당이었다. 워리어 스포츠 페스티발은 1지역대에서 이번 가을에 실시될 카투사-미군 친선 주간과 비슷한 양상을 띄는 행사이나 카투사-미군 친선행사 기간이 카투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업무 능력을 기념하는 취지였다면 워리어 스포츠 페스티발은 여러 운동 종목들과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등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각 부대의 전우애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는 것에서 구분되는 행사이다.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워리어 스포츠 페스티발은 일과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 경기들이 벌어졌고 저녁에는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캠프 케이시에서 축제의 마지막 날인 4일 날, 밴드 더그 알랜과 시카고 맙(Doug Allen and the Chicago Mob)의 공연이 열렸다. 열정적이고 파격적인 공연으로 더그 알랜과 시카고 맙은 여러 미군과 카투사 장병, 그리고 인근에서 초대된 민간인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이어서 웨인 뉴튼(Wayne Newton USO Show)쇼가 진행되었고 관객의 열정적인 호응 가운데 쇼는 성황리에 끝났다. 이어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와 세러모니가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미군과 카투사들은 진심으로 미국의 독립기념일 밤을 즐겼고 함께 했다.

워리어 스포츠 페스티발의 꽃인 운동경기는 육상, 수영 등의 기초 체육에서부터 농구, 배구, 축구 등의 구기 종목 및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사격, '워리어 서바이버(Warrior Survivor)' 그리고 미 2사단 특유의 경기인 '토마호크' 던지기 대회 등 총 15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각 종목별로 상금이 걸려서 참가자들의 더욱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볼링, 소프트볼, 줄다리기, 탁구, 다트, 카드게임, 윷놀이, 말굽던지기, 가라오케 등 남녀노소, 카투사와 미군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이번 워리어 스포츠 페스티발을 처음 접해보는 17항공여단 B중대 Enroute 소대 김두수 상병은 "이번 워리어 스포츠 페스티발을 계기로 미군들과 함께 경기에 임하면서 훨씬 더 친숙해질 수 있었다.

2 면에서 계속...

Pfc. Dianne DeLorme/ Indian Head

워리어 올림픽 행사 중 미 2사단 장병들이 줄다리기 시합을 벌이는 모습

독립기념일 행사

카투사 신문 장승모

베이글 먹기 대회

지난 4일 용산 사우스포스트에서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독립기념일이란 미국이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남으로써 독립된 주권을 획득한 날로 1776년 7월 4일 이후 올해로 228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았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독립기념일이란 조국의 탄생일이자 미국인이 자유를 얻은 날"이라고 말한 제2지역대 주택공급과장 Ike Zeitler 소령은 "아마도 한 해의 기념일 중 가장 의미 있는 날일 것"이라며 독립기념일이 미국인들에게 갖는 의의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오에 Crystal Spider라는 4인조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용산 청소년 센터 체조반 학생들의 안무와 락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바이올린 연주, 재즈 댄스 공연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공연 사이사이에 있는 즉석 퀴즈 쇼와 추첨 행사를 통해 행사장을 찾은 많은 인원들은 푸짐한 상품을 탈 수 있었고, 컬리어 필드에 마련된 놀이기구들과 각종 콘테스트들은 특히 어린이들을 매우 즐겁게 해주었다.

이 날 행사는 미군들은 물론이고 카투사들에게도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 날 상당한 수준의 힙합 랩과 춤 실력을 보여주며 행사장을 뜨겁게 달군 8군본사 군수참모부 서진원 병장은 "많은 미국인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사 공연에 직접 참가한 소감을 말했다.

행사장을 찾은 18의무사령부 응급의료과장 Sean Omara 소령은 "우리는 부대라는 작은 사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 상 부대원들이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런 기념일을 계기로 부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다"며 "또 행사 진행이 한국어와 영어 양 국어로 동시에 진행되어 한국인들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마술쇼와 베이글 먹기 대회, 음료수 마시기 대회 등이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채리나, 린애, 이재인 등 가수들의 공연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이후에는 미8군 밴드의 연주와 성대한 불꽃놀이가 선을 보였고, 마지막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음과 동시에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이 날 행사를 준비해온 34지원단 한미관계담당실(Community Relations Office) 소속의 문주선 상병은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어 뿌듯하다"는 말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들 미국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 소감을 밝혔다. ■

상병 장승모

카투사 신문 장승모

행사 중 진행자 이수길씨가 림보 게임 시범을 보이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7월 첫 번째 28권 13호) 1면 '한국전쟁 53주년 헌화행사' 관련 '군종참모부 김종빈 상병'을 '김종민 상병'으로, 2면 '백선엽 예비역 대장 안보초빙강연' 관련 '정훈 교육을 대신하여 행해진 이번 강연은 한국군지원단 단장 김덕곤 대령이 백선엽 장군을 표창하는 것으로~'를 '장병 대적관 확립 및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실시된 이번 강연은 장병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한국군지원단 단장 김덕곤 대령이 백선엽 장군에게 감사장을 전하는 것으로~'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쇄창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진) 이세희
편집장
병장 김대동
기자
병장 이만석
상병 강병삼
상병 장승모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Steven A. Boylan
Information Strategies OIC
CPTMary J. Constantino
Editor
SGT Kim, Dae Dong
Staff Writers
SGT Lee, Man Suk
CPL Kang, Byung Sam
CPL Jang, Seung Mo
Special Assistant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 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j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스포츠 행사

1면에 이어서...

특히 토마호크 경기에서의 강력하고 묵직해 보이는 도끼가 아직 눈 앞에 선하다. 힘든 군생활 가운데 이번 워리어 스포츠 페스티발이 군생활에 큰 활력소가 된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워리어 스포츠 페스티발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8인사행정사령부 509인사대대 유동희 일병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 2사단이 어느 지역보다도 단합이 잘 되고 장병들이 항상 활기차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보기에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

상병 연규영/ Indianhead

J S A 콘서트

지난 7월 11일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유엔사 경비대대, 미2사단, 한국군 보병 1사단 장병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Rock on the DMZ" 행사가 있었다. 이날 운집한 3,000 여명의 장병들은 무대에 선 이들에게 콘서트 내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인 Leon LaPorte 대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이어진 유진, 유니, 마야 등 가수들의 공연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콘서트를 찾은 많은 미군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의 후반부에는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고, 이 시간 동안에는 한국군과 미군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양국의 장병들이 가까이에서 한미 우호를 다졌다. 이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8th Army PAO SSG. Russell C. Bassett

콘서트 중 가수 유니가 공연하는 모습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kimddong@usfk.korea.army.mil

■군상식

MH-53J/M Pave Low

제공사진

정면에서 날아오고 있는 MH-53J 헬기의 모습

MH-53J의 임무는 저고도, 장거리 비행으로 은밀히 적지에 침입하는 것이며 주야간, 악천후 속에서도 특수부대원을 침투 / 탈출 / 재보급시킨다.

베트남전에서 명성을 날린 시코르스키社의 HH-53 졸리 그린 자이언트와 같이 MH-53J 페이브 로우 Ⅲ도 미공군 특수작전 사령부가 운용하는 주요 헬기에 속한다. 이 항공기는 최상의 기술로 개수되었고 첨단 장비가 증강되었다.

MH-53J Pave Low III 重수송헬리콥터는 美 공군의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저고도 비행을 위한 지형추적 / 회피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1989년 파나마에서의 'Just Cause' 작전과 걸프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페이브 로우는 미공군 비축 헬기중 가장 강력한 기종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헬기이다. 이 헬기에는 전방감시용 적외선 장비, 관성 GPS, 도플러 항법 시스템, 지형추적 / 회피 레이더, 내장형 컴퓨터가 탑재되었고 첨단 전자장비들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험한 지형, 혹독한 기후에서도 주야간 관계없이 정확한 저레벨 장거리 침투가 가능하다.

1999년 미공군특수작전 사령부는 MH-53J 페이브 로우를 개수하기 시작해 인터렉티브 방어전자 시스템/개량형 다임무 전술터미널을 추가시켰으며 이 작업으로 대기율과 효율성이 강화되었다. 이외의 페이브로우 헬기에 대한 개수작업의 새로운 목표는 M 모델이다. 이 시스템은 컬러, 다기능, 나이트 비전 호환, 디지털 맵 스크린이다. 헬기의 계기 패널에 위치한 이 디스플레이로 승무원은 보다 정확한 전장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즉각 제공받는다. 비행항로, 동력선과 같은 인공 장애물, 적 위협 등이 읽기 쉽게 표시된다.

이 시스템은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 곧바로 컴퓨터에 입력시킨다. 이후 암호가 해독되고 회항로와 고도 밴드 등의 주변 지형정보 데이터가 3차원 컬러 영상으로 표시된다. 승무원은 버튼을 눌러 디지털항법의 항로와 방위각 정보, 그리고 맵 디스플레이를 본다.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해 승무원의 편의를 최대 고려했기 때문에 승무원은 계기 패널 기능을 간단히 조종할 수 있으며 정보 흐름의 효율성도 향상됐다.

이와같은 고도의 기술은 승무원 중심이라 하겠는데, MH-53J의 조종사는 부조종사와 비행 엔지니어의 보조를 받는다. 이들 3명은 옷장보다 작은 조종실에 옹기종기 들어가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의 책임과 조종관리 분야가 있다. 이들은 모두 혼을 빼놓는, 가끔은 속을 울렁거리게도 하는 페이브로우의 기동을 펼치고 있다.

승무원에게 제공되는 방어력은 장갑처리와 무기 시스템이다. 조종실 바로 뒤에 7.62 밀리 소총이 있고 출입 램프 위쪽의 기미에는 50 구경 기관총이 있다. 페이브 로우의 주임무는 위 열거한 무기와 함께 침입/탈출 플렛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외에 공격 기능도 할 수 있다. 장갑, 무기류, 기동성이 조화된 이 헬기로 승무원은 충분히 보호된다.

걸프전 사막폭풍 작전 당시, 미공군 특수전사령부의 MH-53J가 미육군의 AH-63 아파치 헬기를 이라크 적진 깊숙한 곳까지 안내했다. 황량한 사막을 수백마일이나 날아간 에어 코만도는 2개의 이라크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로 출격했다. 그곳에서 아파치는 헬파이어 미사일로 이라크의 지상 표적을 파괴했다. 이것이 미군에게 통로를 터준 계기가 되어 다국적군이 공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페이브 로우는 특수부대의 침입, 탈출, 재공급 외에도 다국적군을 위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터키, 페르시아 만에서 전투 수색 및 구출을 제공했다. MH-53J는 사막폭풍 작전에서 투하된 조종사를 첫 번째로 전투복구 시키는데 성공했다.

MH-53M Pave Low IV 는 J 모델을 변형시킨 것으로 IDAS/MATT (Interactive Defensive Avionics System/Multi-Mission Advanced Tactical Terminal)가 장착되어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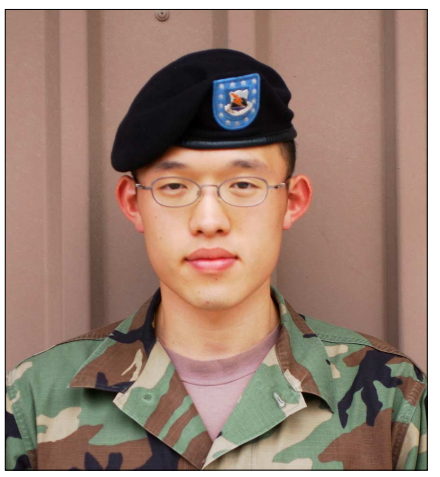
변형 모델인 MH-53M Pave Low 헬기의 모습

카투사들의 한마디

전역하기 싫어질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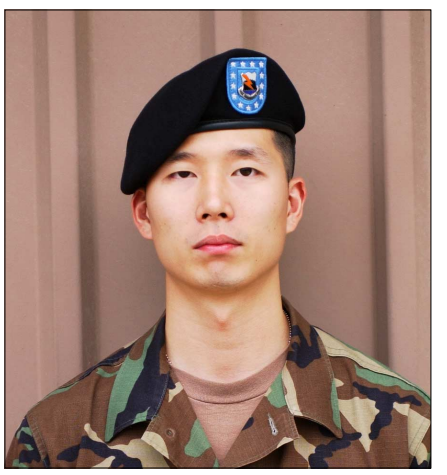
304통신대대 본부중대
상병 김형우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 온 만큼 전역이 기다려지지 않을 때는 한시도 없을거라 생각했지만 캠프 콜번에서의 1년 반이라는 생활은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합니다. 독립 캠프이면서 소수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우리 부대는 카투사들끼리의 전우가 남달리 돈독하여 선임병 후임병들과의 헤어짐을 생각할 때마다 전역하기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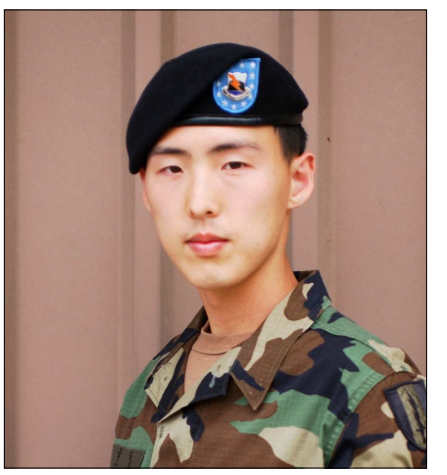
304통신대대 본부중대
병장 전원현

저에게 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은 결코 길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카투사로서 복무하는 동안 늘 새로운 것을 접하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좋은 시설에서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제대후에 매우 그리워질 것입니다. 제대후에도 이처럼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304통신대대 본부중대
상병 심봉민

앞으로 1년 남짓한 시간이 남았지만 전역하기 싫다고 느낄 때는 친구들이 기말고사에 시달리는 것을 볼때나 신문 경제면에서 취업난에 암울한 실정을 기사로 도배할 때 또는 캠프 콜번 위의 산들에 둘러쌓인 필드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볼 때,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정들어 버린 캠프 콜번을 떠나는 순간이 아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304통신대대 본부중대
일병 류중길

입대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 지금 언급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전역하기 싫을 때라기보다 부대에 있을 때가 좋을 때는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로 웃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건 전역을 하고 나서도 남을 만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공사진

304 통신대대

304th Signal Battalion, 1st Signal Brigade

서울 동쪽에 있는 하남시, 시내를 지나면 나오는 한적한 길에 캠프 콜번이 있다. 이 캠프에 있는 유일한 부대가 바로 304통신대대이다. 캠프 전체가 304통신대대원들로 이루어져, 어디를 가던지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다.

304 통신대대는 항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진 배치되는 전술통신대대로서 직접 야전에 나가 유엔군, 한미연합군,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 8 군 전투부대에 작전 전반에 걸친 신속한 통신 지원을 제공한다. 대대는 1921년 3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창설되었으며 2 차 세계대전 중 뉴기니와 필리핀에서 미8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이때 부대 공로 표창장과 필리핀 대통령의 부대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그 후 점령군의 일원으로 일본에 있다가 1950년 여름 한국에 실전 배치되어 10여 차례의 전투에 참가, 2회의 부대 공로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1977년부터 캠프 콜번에 머물고 있는데, 본부중대와 C 중대는 이곳에 남아 있고 A 중대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B 중대는 원주의 캠프 롱에 파견되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3 월의 RSO&I 와 8월의 UFL이 큰 훈련이고 큰 훈련 전에는 1 주일씩 그에 대비한 훈련을 한다. 대대작전이기 때문에 모든 중대가 훈련에 참여하고, 한반도 전역에 걸친 유, 무선 통신망을 구축한다.

304통신대대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일단 고등학생들을 이틀 정도 캠프에 초청, 미군들과 영어로 대화, 토론하는 수업을 하고 부대 내 시설을 견학할 기회를 주는 영어캠프 행사를 열고 있다. 또 하남시청과 연대해서 미군들과 카투사들이 식목일에는 나무를 심었으며, 얼마 전엔 산곡천이라는 하천 청소를 했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진보육원 원아들을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대접하며 평시에도 군종 주관 하에 카투사, 미군들이 보육원생들과 함께 놀이공원 등으로 놀러간다고 한다. 그리고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사랑의 동원'에서 여러가지 일을 도와주고 청소를 하는 등의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근 한달에 한번씩은 NCODP(NCO Development Program)를 실시하는데 대대의 NCO 들을 대상으로 부사관들이 해야하는 일들, 즉 카운셀링, 사병들의 복지, 성희롱방지교육 등에 대하여 최소 4시간씩, 매주 주제를 바꿔가며 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런 활동이 활발하여 정훈시간 말미에 미군 지휘관들이 교육을 하기도 한다. 또 카투사들이 미군에게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것처럼 앞으로는 수요일마다 미군들이 각자 자신의 출신주(州)에 대해 소개하여 다양한 미국문화를 카투사들에게 알려 줄 계획이라고 한다.

캠프콜번의 병사들은 서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격의 없이 지내는 카투사들끼리는 물론이고 카투사와 미군들이 매우 친하게 지낸다. 대대선임병장 박석준 병장은 "미군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군생활이 더욱 편할 정도"라며 "서로 생일을 챙겨주고 명절 때는 선물교환을 하는 등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휴일에 같이 야구장도 가고 경복궁 등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캠프 콜번은 작은 캠프이고 주변도 한적한데다 공기도 좋기 때문에 많은 카투사들이 PT 에 매진하고 있으며 아침 PT 시간에도 3 인 1 조로 2 명이 1 명을 안고 언덕 위로 뛰어올라가거나 부대 밖으로 5-6마일을 뛰는 등의 PT를 한다. 따라서 C중대같은 경우 평균이 270에 가깝고 입대시 팔굽혀펴기 3 개, 2 마일 달리기 16분 10초였던 한 카투사는 병장인 지금 PT 마스터이고, 특히 2 마일 달리기는 12 분 10초의 기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들은 월요일 저녁 오후 운동 모임을 열어 여름에는 축구, 겨울에는 농구를 하는 단합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전역이 멀지 않았는데 군생활에 후회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304 통신대대 선임병장 박석준 병장은 "영어든지 운동이든지 하나의 목표를 세운 후 독하게 마음먹고 이뤘으면 한다"며 "하나를 해놓으면 나머지도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하였다.

C 중대 문지범 병장은 "캠프 안이 경사져 있는데 피티할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작전지에 가서 첫날, 특히 비오는날 장비 설치할 때"를 힘들 때로 꼽았으며 "미군들을 영어로 지휘, 일을 잘 처리했을 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C중대 중계반송기운용병 한상우 이병은 부

카투사 신문 강병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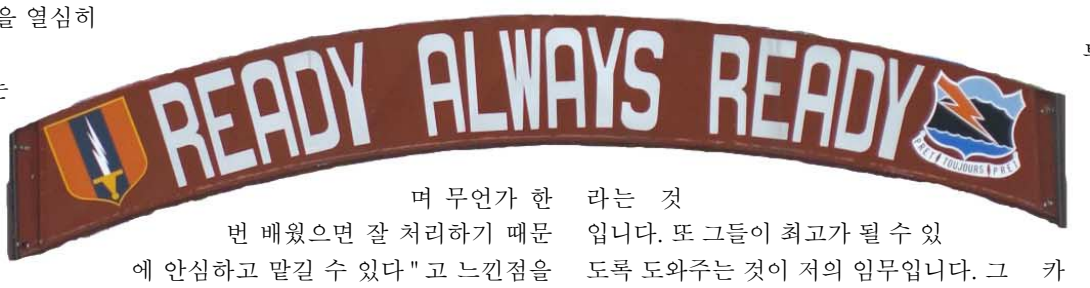
대에 대해 "전입시부터 다정한 느낌을 받았고 적응하기 쉬웠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보직에 대해 "통신부대에서 핵심적인, 통신 자체를 직접 다루는, 가장 통신과 밀접하다"고 전했다. "후반기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남들보다 노력해서 배우고 현재 보직에서 일을 최대한 빨리 숙지하여 NCO가 되는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썬 그것이 군생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대대본부의 심봉민 상병은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지만 대대본부에 있다보니 부대 전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쉽고 카투사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자기계발시간에 충분히 투자 못한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는 영어실력을 더욱 기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주 캠프 롱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304통신대대 B중대의 선임병장 김적교 병장은 "파견근무하고는 있지만 대대원들끼리 교류가 잦아 잘 지내고 그 외에도 불편함이 없다"며 "다같이 군생활, 특히 훈련을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전입온지 한달 반이 지났다는 304 통신대대 본부중대 Kris Cavanary 주임상사는 대대에 대해 "단결되어 있고, 매우 좋은 업무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대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언제나 전투에 준비하고 있을 것"과 "서로 돌볼 것"을 당부했는데 특히 "전쟁이 나면 우리는 서로 지켜주어야 하는 관계"라며 카투사와 미군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가 군생활을 시작한 2년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보드시험에서 카투사들이 외국어로 된, 외국 군대에 대한 시험을 문제없이 치루는 것을 본 것입니다. 카투사들은 매우 현명하고 영리합니다."

304 통신대대 Phillip Douglas 주임원사는 대대에 대해 "그 자신을 위한 기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통신대대"라며 "지역민들과 사이도 좋고 대대원들 전체가 멋진 그룹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오기 전 카투사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 본긴 했지만 직접 같이 일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그는 카투사들에 대해 "여기 와서 직접 느낀 것은, 카투사들은 징집병이지만 직업군인처럼 일한다는 것과, 매우 영리하고 기술이 있고 성숙하다는 것"이라며, "전입 후 2-6달 만에 마치 3년 정도 근무한 것처럼 일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또 "불평하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며 무언가 한 번 배웠으면 잘 처리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느낀점을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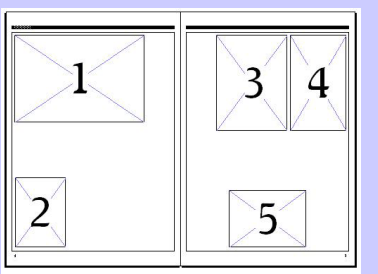
그는 병사들에게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병을 보면 일병일 때의 제 자신이, 상병을 보면 상병일 때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저 자신이 언제나 최고가 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하던지 될수 있는 최고 가 되라는, 저보다 나은 최고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들이 최고가 되면, 그들 자신에게도 이익이고, 조직도 이익을 봅니다."

7월 11일부터 대대선임병장을 맡게 된 김형우 상병은 수십명의 카투사를 대표하는 앞으로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304통신대대의 경우 카투사들이 중요 보직에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카투사들이 정훈교육을 가면 부대가 운영되지 않고 나머지 병력들은 청소나 하는 정도로 카투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언어적 장벽 등으로 손해보는 카투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헌병도 없는 독립부대이기 때문에 경계근무 등 헌병업무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다른 작업 등에 있어서 카투사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싶고, 그들의 복지개선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

상병 강병삼

제공사진



1. 작전시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304 대대원들의 모습.
2. C중대 한상우 이병이 통신차량의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3. C중대 Patricia Gordon 상병(위), Raul Rios 이병(왼쪽), 문지범 병장이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4. C중대 선임병장 이갑수 병장이 M249을 분해, 점검하고 있다.
5. 본부중대 김우중 일병(왼쪽)과 한우석 상병이 경기도 하남시의 산곡천을 청소하고 있다.

달님은 알지요

김향이 / 비룡소

제23회 삼성 문예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왕자나 공주, 마귀할멈이나 요정이 아닌 순전히 우리 토박이들의 이야기이다. 이 글은 우리가 늘 바라보는 고향 같은 산과 들과 마을에서 우리 부모 형제와 이웃들이 겪어온 온갖 슬픈 사연들,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푸짐한 우리말로 들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아마 독자들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귀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정보서비스

www.artsonline.or.kr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번에 한눈에 보여주는 사이트이다. 한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전통문화, 연극대본, 영상재료 등 공연예술, 한국 미술작가, 문학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주요 공연장 별로 최근 공연되고 있는 공연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주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더 쉽게 가까이 있는 문화시설들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카 투 사 기 고 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

이탈리아의 프로리그

-> Serie A

-5월 두번째 호에서 이어집니다

Serie A 리그 경기 중 말디니와 인자기 선수의 경합 모습

안정환 선수가 페루지아 팀에 진출해 익숙해진 이탈리아의 프로축구리그 세리에 A는 '카테나치오'라 불리우는 빗장수비로 묘사된다. 골을 넣기 위한 축구가 아닌 골을 먹지 않기 위한 축구를 하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 이다. 이탈리아 축구의 또다른 특징은, 플레이 메이커를 둔다는 것이다. 서정원-고정운, 설기현-이천수 등 측면 공격이 주된 공격 루트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앙 공격을 주로 하는 이탈리아 축구는 드리블이 좋고, 공격진에게 수준급의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 메이커가 발달되었다. 지단, 베론, 네드베드등 유명한 플레이 메이커들은 모두 세리에를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플레이 메이커를 축으로 하고 이를 뒷받쳐주는 두명 내지는 세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3-4-1-2 또는 4-3-1-2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리그 라는 악평에서 부터, 조직력의 진수를 보여주는 진정한 축구리그라는 평가까지 팬들의 평가도 엇갈리는 편이다. 선수들의 외모가 뛰어나 많은 여성팬들을 몰고 다니며 유명세를 치르기도 한다.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던 지중해를 닮은 파란색의 쫄티 유니폼은 유로2004 예선을 시작으로 스폰서가 변경되어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다.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급 기량을 가지게 된 데에는 세리에 A라는 최고의 리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국민의 3분의 1이 유벤투스의 팬이라 할만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클럽이다. 친근한 팀 이름(juvenile, 젊은 팀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과 뛰어난 성적, 어느덧 조기 축구회의 단골 유니폼이 되어버린 흰색과 검은색의 세로줄 조합 유니폼 등이 이 팀을 대변한다. 유벤투스의 간판 스타 델 피에로는 로베르토 바지오의 10번을 물려받으며 '판타지스타'의 칭호를 이을 이탈라아의 차세대 기대주로 촉망 받았으나 부상과 토티 선수의 등장으로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No. 10의 자리마저 토티에게 빼앗긴 상태이다. 유벤투스의 90년대의 10번으로 90년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스타 로베르토 바지오는 94년 미국 월드컵 브라질과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를 실축한 이후 하향세를 걸어오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골을 기록하며 재기에 성공해 보이는 듯 했지만 부상과 감독의 외면으로 2002년 월드컵에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불운을 맛보았다. 유벤투스는 단 한번도 2부리그로 강등된 적이 없는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

AC 밀란

이탈리아의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구단주인 축구팀이다. 90년대 초반 네덜란드 삼총사를 비롯,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세계 축구의 흐름을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이탈라아의 세리에로 옮겨오게 한 팀이다. 이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던 '갈색 폭격기' 차범근 선수를 영입하려 시도 했으나 낮은 리그 인지도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스페인 클럽 레알마드리드 다음으로 많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력을 갖고 있으며 6번을 영구 결번으로 남긴 카테나치오의 교본 프랑코 바레시, 2002년 월드컵에서도 활약한 세리에 A 최다 출전 기록 소유자 파올로 말디니, 동구의 호나우도라 불리우는 쉐브첸코 등의 선수들이 유명하다.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 10번을 달고 있는 토티 선수

더비 매치

같은 연고를 두는 팀들끼리 치루는 경기를 더비 매치라고 한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두산과 LG의 경기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특히 발달되어 있으며 밀란을 연고로 한 AC 밀란과 인터밀란, 로마를 연고로 한 라치오와 AS 로마, 로미오와 줄리엣 더비라 불리우는 키에보와 베로나등의 여러 더비 매치가 있다. 더비 매치에는 연간 회원이 아니면 표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관중들이 많이 입장하며 그만큼 경기 또한 일반 경기와는 다른 더비 매치만의 무언가가 존재한다. 남유럽인들의 정열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매치이다. ■

41통신대대 상병 이현규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18 장

*어떤 걸 추천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은 식당에서 외국 요리를 주문하려면 약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재료도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 최선의 방법은 '웨이터'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아래의 표현을 쓰지요.

Topic : "어떤걸 추천하십니까?"

What would you recommend?

주제연구)

위 표현에 나오는 recommend 는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을 추천하다' 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취직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추천서'는 a letter of recommendation 이라고 합니다.

A: Have you decided yet?

B: Um… I'm not familiar with French food, what would you recommend?

A: Why don't you try number four? It's a veal steak with a wine and mushroom sauce.

B: That sounds good. Let me try it.

번역)

A: 결정하셨나요?(waiter 가 손님께 할 수 있는 표현이지요.)

B: 음… 사실 난 프랑스 음식은 잘 몰라요. 추천해 주실래요?

A: 4번 음식을 드셔보세요. 송아지 고기 steak 에 버섯 소스에 곁들인 송아지 스테이크와 포도주가 나옵니다.

B: 좋아요, 그걸로 하겠어요.

*오늘 밤 특별 메뉴가 뭔가요?

여러분이 혹시 식당에 가셨는데 그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잘 만드는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섣불리 음식을 주문하면 말 그대로 '돈만 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현을 잘 연습하셔서 이런 실수를 막아야겠죠?

Topic : "오늘 밤 특별 메뉴가 뭔가요?"

What's the special tonight?

주제연구)

일반적인 미국의 식당에선 요일을 정해 놓고 'special(특별 음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American style, 화요일은 French Style, 수요일은 Italian style 등 이죠. 그런데 혹시 그날의 특별 메뉴가 뭔지 모를 경우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래의 표현입니다.

A: Waiter, what's the special tonight?

B: A T-bone steak with a freshly baked potatoes.

A: I had steak for lunch. Do you have a seafood special available?

B: Yes, we do. It's 2 lbs of Canadian lobster tail.

번역)

A: 오늘 밤 특별 메뉴가 뭔가요?

B: 신선한 구운 감자에 T-bone steak 입니다.

A: 점심때 steak를 먹었거든요. 혹시 '해산물 특별 요리' 있어요?

B: 물론이죠. 무게가 2 파운드 나가는 캐나다산 바닷가재 요리가 있습니다.

덧붙여)

위 표현중 I had steak for lunch. 라는 표현을 집중 연습합니다. Have 동사는 '~을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have 동사 뒤에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먹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I will have chicken for lunch. 라면 "난 닭고기를 먹겠어요."로 해석된다는거죠. 그래서 Did you have breakfast?는 "너 아침식사했니?" 라는 뜻입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있어요?

세계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고 그에 발 맞춰 몸에 좋다는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아래는 vegetarians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대화를 꾸몄습니다.

Topic: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있어요?"

Do you serve vegetarian dishes?

주제연구)

야채를 영어로 vegetable 이라고 합니다. 그 vegetable 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늘 배울 vegetarian 입니다. 영어 단어가 -ian 으로 끝나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의미하지요.

A: Where should we go for dinner?

B: Any place that has some meat-free dishes.

A: I know one Indian restaurant that serves vegetarian dishes.

B: And they've got some meat dishes for you, too, right?

번역)

A: 저녁 어디서 먹을까?

B: 고기 없는 음식이라면 뭐든지 좋아.

A: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을 파는 인도 식당 한 곳을 알지.

B: 그리고 거기 가면 당신이 좋아하는 고기 메뉴도 있지?

덧붙여)

오늘 대화의 meat-free는 '고기가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명사 뒤에 free 가 붙으면 '~이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많이 먹었어요.

식사초대를 받아 함께 음식을 먹을 경우 host(초대자)는 "더 드세요"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럴 경우 "많이 먹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연습합니다. 참고로 "더 드세요."는 간단히 Have some more! 라면 되겠죠?

Topic : "많이 먹었어요."

I've had enough!

주제연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ave 동사에는 '음식을 들다'라는 의미가 숨어있어요. 예를 들어 Did you eat breakfast?라는 문장과 Did you have breakfast?의 차이는 Did you have breakfast?가 더 정중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Did you eat breakfast? 는 "밥 먹었어?" 정도로 친구 또는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A: Come on, have some more potatoes!

B: No thanks, I've had enough.

A: Okay, what about dessert?

B: Do you have strawberry ice-cream?

번역)

A: 자,자, 사양하지 말고 여기 이 감자 좀 더 들어요.

B: 됐습니다. 많이 먹었는걸요.

A: 좋아요, 그럼 디저트 어때요?

B: 딸기 아이스크림 있어요?

덧붙여)

일반적으로 dessert 로 나오는 음식은 ice-cream 또는 색깔이 검은 german chocolate cake 이 있습니다. 물론 과일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요.

나쁜 녀석들

감독: 마이클 베이

주연: 마틴 로렌스, 윌 스미스

여전히 절묘한 팀워크를 발휘하는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는 마이애미에서 유통되는 환각제 엑스타시의 정체를 밝히라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1 편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두 주연은 이번 속편에서 더더욱 탄탄해진 연기력을 선보인다. 젊어진 여배우만큼이나 쌩쌩해진 액션과 스피드,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가 오렌지 톤의 영상에 묻어난다.

아껴둔 이야기

강성훈

2.고백 / 이재진
3.아틀란티스 소녀 /BoA
4.난 / 옥주현
5.The Best/ 유진
6.Missing you/Fly to the sky
7.한번 단 한번 /Seven
8.아이러니 / 뜨거운 감자
9.나 어떡해 /NRG
10.클랄라 / 심태윤
11.Shine/Sugar
12.Lucky chance/ 악동클럽
13.사랑합니다/Tim

핑클의 아름다운 홀로서기 옥주현

4인조 여성 인기 그룹 '핑클'의 멤버인 옥주현이 솔로 앨범을 들고 가요계 정복에 나섰다. 이미 모든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그녀의 타이틀곡 '난'은 그녀의 노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모든 공연을 라이브로 소화해 냄으로써 후배 가수들에게 진정한 가수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관을 가지고 가수 생활을 하겠다는 그녀의 굳은 다짐을 들으며, 기자는 그녀가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카투사 신문 장승모

비결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녀가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가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옥주현입니다! 제 생년월일은 1980년 3월 20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입니다.

-최근 근황

이번에 솔로 앨범을 냈고 '난'이라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타이틀곡 '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난'은 팝페라라는 장르의 곡이에요. 팝페라는 팝과 오페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두 장르의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이틀 곡 '난'은 한자로 어지러울 '난'자예요. 이 곡은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고 몹시 괴로운, 힘든 그 심정을 노래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지럽다는 뜻에서 '난'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룹과 솔로의 차이점

솔로로 활동하면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외롭다는 걸 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핑클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혼자 무대에 서고 노래를 부르니까 예전보다 외로움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의 그 북적북적함이 그리울 때도 있고요. 그 반면에 솔로로 활동해서 좋은 점은 차로 이동 중에 넓게 자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

-어떤 계기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라디오 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별로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부담감도 있었어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역사도 깊고 권위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보다 더 중압감도 있고 해서 '혹시 내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잘 못해서 그 명성에 흠이라도 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역시 너무나 해보고 싶어서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좋은 점과 힘든 점

힘든 점은 늦은 시간까지 말을 쉴 새 없이 해야한다는 거예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는 입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방송 끝내고 집에 가는 동안에는 말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다면, TV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진솔하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해야하고 또 예쁘게 꾸며야 하잖아요. 이에 반해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이 더 인간적이고 저 또한 이런 다른 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군인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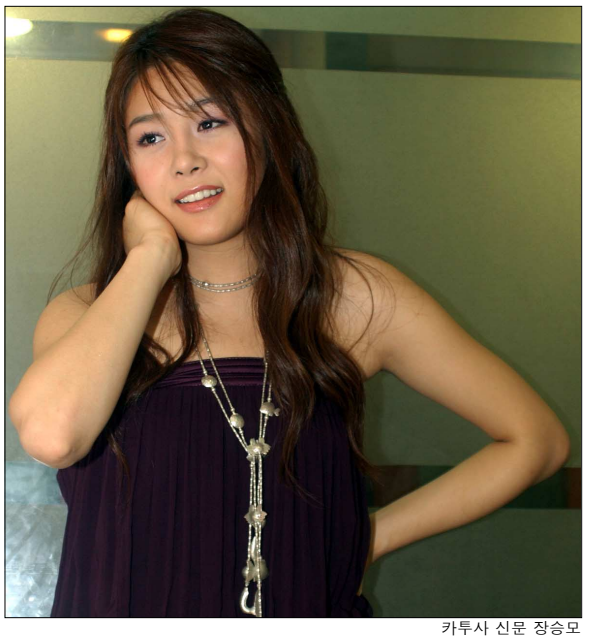
여자친구에게 쓰는 편지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어디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니 너도 잘 있어라'이런 식의 사연들이지요.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서함 801호'라는 코너가 있어요. 배경음악과 함께 편지를 읽어드리는 건데 군인 청취자 분들의 편지는 다들 그리움이 많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면 제 자신이 애틋하고 또 안타까운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군대 가는 남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군대 가서 적응 잘 하고 열심히 군복무하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어디서든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살아남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또 부대에서 식사도 거르지 말고 항상 몸 건강하라고 말해주겠어요.

-군인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

군대 갔다 온 제 친척 오빠들을 보면 정말 군대 가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장난기 묻어나던 모습이 군대를 갔다온 후에는 남자다운 늠름함, 듬직함 등으로 바뀌더라고요.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자체에서 남자다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멋진 것 같아요.



카투사 신문 장승모

-추천하고 싶은 책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류시화씨가 인도를 여행하면서 쓴 이야기인데 기행문이지요. 제가 기행문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군인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혹시나 자신의 부대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배우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

핑클이 아직 해체되지 않았으니 언젠가는 분명 다시 저희 넷이 함께 무대에 오를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솔로로 활동할 계획이에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 밴드와 함께 공연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후속곡이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해요. 일단은 타이틀 곡 '난'이라는 노래를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사랑 받는 게 지금의 목표랍니다!

-어떤 가수로 남고 싶은지

정말 뮤지션다운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시대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정체성을 갖춘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워낙 요즘에 한순간에 왔다가는 그런 가수들이 많잖아요. 제 생각에 너무 유행에 자신을 맞추려다 가수들의 생명이 짧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음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카투사분들은 미군들과 함께 근무하시니 군대에 계시는 동안 일반 군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군생활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주현이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

카투사 신문 장승모

상병 장승모

프로필

생일: 1980/3/20

신장: 170cm

혈액형: O형

학교: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